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53호 [무게 제 25762호] 주제 106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반만년민족사에 위대한 강국의 시대를 펼친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인민의 영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위대한 병전의 기치높이 력사에 전무후무한 핵무력 건설대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 세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노래, 시대의 찬가가 뜻깊은 9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고있다.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옹호하고 총직하게 만들어 자주와 정의의 장엄한 핵희생으로 지구상의 온갖 불의를 쳐물리치며 사회주의강대국의 필승불패성과 불가항력적인 위력을 만방에 과시한 자주적인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새차게 설매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철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 사생결단의 선군이지와 불면 불휴의 애국헌신으로 병전의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들을 련이어 안아오시어 주제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려져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국방과학부문의 책임일군들과 공로있는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관람석에 나왔다.

대륙간탄도로켓트장악용 수소탄시험성

공에 기여한 성원들, 원자력부문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이 탄생한 경사로운 9월에 수소탄의 거대한 피성을 가장 장쾌한 승전가로 어머니조국에 삼가 드린 개선영웅, 우리의 자랑스러운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녀성4중창 《영원한 메아리》, 녀성중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녀성3중창과 남성합창 《당이어 그대 있기에》,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신념》, 관현악과 남성합창 《빛나는 조국》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완수하는것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

의지로 핵무력강화의 천만고비를들 완강하게 강행들과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철사관철하는 길에서 참된 삶을 빛내여가는 붉은 과학전사들의 투철한 정신세계를 반영한 관현악 《단숨에》,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자》, 녀성중창 《인생의 영광》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2 편 으 로 계 속



반만년민족사에 위대한 강국의 시대를 펼친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인민의 영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1 번 에서 계속

너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세계를 경한시킨 주체조선의 편이온 특대사변이 우리 당 병진조선의 자랑찬 승리이고 우리의 무진막강한 핵위력에 진정한 정화가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 주었다.

승리자들의 환희와 경축의 열기가 끊없이 넘쳐나는 종무들은 즐기치고 역센 향도의

힘으로 강대한 조선을 이끄는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과 당의 위업에 충직한 인민의 일관단심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기적의 시대를 열고 인민의 천만소원을 꽃피워가는 위대한 당을 따라 병진의 한길로 역사계 전진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백박지는 공연은 판현악과 남성합창 《총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로 끝났다.

혁명의 만리마를 타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해 질풍처럼 내달리는 강국의 위상이 나타치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할 인민의 불타는 총정과 철의 신념이 천만심장의 합창으로 메아리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무리러 또다시 러쳐올리는 《만세!》의 무절친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품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천민총동력찬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책동들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작, 대혁신을 일으

켜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축하공연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오늘의 민족사적대 승리를 보다 큰 승리로 이어나가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의 강대국을 반드시 일떠 세울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 성대히 진행



주체적핵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목간란도 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은 일심단결, 자력생성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해나가는 천만 군민에게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뜻깊은 9월의 조국강산을 전감시킨 초강력핵무기의 장쾌한 피성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총정의 선물이며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결단적으로 지지옹호하고 당과 사상을 숭경도 함께 해온 전체 조선 인민의 역사적인 승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수소탄시험의 완전 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하여 성대한 축하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었다.

연회에는 대륙간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육관관연회장에 나오시며 대륙간탄도 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예외병대를 시찰하시었다.

연회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영도, 희생적인 헌신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을 편이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국가 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되는 역사적인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고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병기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한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었다.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전 갈래, 만갈래의 시련이 중중첩첩 가로놓인 핵무기병기화의 생노길을 전두에서 헤치시며 오늘날의 민족사적대경사를 안아오시고 그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며 행복의 결정을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뉘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동지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당의 미더운 핵전투원들이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며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 또다시 성대하고 의의깊은 축하연회에 초대된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공화국핵무력의 총사명관이신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공헌한 영웅한 영웅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핵개발자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아온 이번 특대사변은 어머니조국의 힘을 보다 더 강하게 하였으며 온 세상이 초강력수소탄을 장악한 심전화된 대륙간탄도 로켓까지 가진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실재를 직접 확인하게 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핵전투장에 용가 뛰어들어 그 어떤 명예와 평가도 바림이 없이 청춘도 생명도 단란한 가정의 행복도 아낌없이 다 바치며 당의 명령을 기어이 완철한 핵전사대원들이야말로 온 나라가 떠받들어야

할 전파애국자, 숨은공로자들이라고 말하였다.

핵개발자들의 구체적인 투쟁내용과 공로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 당은 지심깊이 묻혀있는 그들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의 갈피갈피를 속속들이 헤아리고있으며 가장 애틍이 평가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번 수소탄시험의 전 과정을 전두에서 이끌어주시고도 제일먼저 핵개발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성공을 축하하는 인사를 보내주시었으며 반미피후대결전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대규모의 평양초청행사를 몹소 조직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북부핵시험장에서 수도도로 이어진 하늘길과 전례없이 열렬한 연도환영, 군민경축대회의 특별초대석에도, 다스란 잠자리와 식사차림표, 오늘날의 성대한 연회와 축하공연의 매 목목에도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핵전투원들을 생각하시며 기쁨속에 앉혀주고싶어하시는 다심한 어머니 심정이 그대로 어려있었다고 그는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세상에는 국방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핵개발자들과 같이 영도자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라 갔고 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는 행운아들은 없다고 말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성공의 축하를 제일먼저, 제일 열렬히 받으셔야 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핵무기병기화를 강국건설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시고 주체적핵무기의 개발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었으며 몹소 그 실현을 위한 기발한 방안도 안겨주시고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부여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고와 헌신의 만단시연은 몇백, 몇천권의 책에도 다 담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정녕 초강도국발력을 가진 우리의 수소

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응축된 김정은동지의 수소탄, 조선로동당의 열혈탄이라고 그는 격동된 심정을 리쳐놓았다.

연설자는 위대한 스승, 지어로운 어머니가 되시어 핵무기개발자들에게 온갖 사랑과 베풀을 다 돌려주시며 민족의 장한 아들,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오늘날의 민족사적대경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말 삼가 드리었다.

우리 당은 조국과 혁명에 무한히 총직한 국방과학전사들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 강대국의 찬란한 태양을 설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핵개발자들이 당중앙결사옹위정신을 단강약하고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전투를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세계최강의 핵안두들이 최고사명부의 병기장에 딱 들어차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국방과학전사들이 당과 조국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핵무력완성의 길에서 정취한 오늘의 승리를 보다 큰 승전포성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총대진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우리 당의 핵무력건설구상을 실현적성으로 받들어 초강력핵무기의 장엄한 폭음으로 온 행성을 전감시키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정신차릴새없이 연속공격, 연속강타를 안기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친 핵전투원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연회장에 차 넘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회석상에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부문별과업을 제일 담담하게 헌신적으로 관철한 핵개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

에게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의 초행길을 열어 주시고 빛나는 승리에 이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의 승전소식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올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판필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핵전투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본받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병진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지위적인 핵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과학연구시업을 더 아실치게 벌려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든든한 자립적 경제토대가 있으며 비상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대군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군대와 인민, 자력생성의 투쟁정풍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전투원들이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투쟁기풍을 순간도 늦추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연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총성으로 받들고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전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세계최강의 핵안으로 당과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인군들인 리만건동지, 홍승무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공화국창건 69돐을 맞으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9월의 하늘가로 매아리쳐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선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우리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핵보급을 마련해 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와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렬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시며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편단심 당을 따라 혁명력강화의 길을 끝없이 걸으며 초강대국발명을 가진 주체식 열핵무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자주

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철퇴를 안기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웅적인민의 강요한 기상을 만방에 떨친 우리 당의 미더운 핵전투원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열렬한 애국심, 고귀한 뜻을 다 바치며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올려세우기 위해 헌신해온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전력

적핵무력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심장길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권위와 공화국의 존엄이 실린 주체란의 즐거운 최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함으로써 위대한 대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국가를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 불타는 걸음을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었다.

618건설돌격대원들이 화력건설현장기업소 로동자 김성진, 청진자동화기공장 로동자 김항숙은 고산방울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무용도원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불꽃을 진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있으며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돌격대에 단련하여 젊음의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보진성 제2예방원, 남산병원 간호원들이 땀은경, 김성향은 맑은 일출을 성실하게 하면서 지원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주체혁명의 억센 뿌리가 내린 삼지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대요전박물관으로, 사회주의막으로 꾸며가는 불격대원들을 볼 때는것을 마땅한 기분으로 여기고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인민보안원 후원은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청진구역공업품종합상점 로동자 심영희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액의 정을 기울였다.

덕원철제가정용품공장 직업인장 최철민은 조국의 무장반영을 위한 투쟁에 헌신할 일념만이 물심방면의 지원으로 청춘파괴된

실에 이바지하였다.

선군시대공로자로 내세워온 당의 믿음과 심장길이 간직하고 청진구역대홍관리부 부장 리태환도 많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여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자력자강의 만리마대진군에서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적극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언덕으로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이 땅에 군로하는 인민이 주인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으며 대양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만노동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은 군중들의 꽃길이 끝없이 굽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세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의 강국건설 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철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 등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에도 다함없는 총성의 대하가 출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대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현재만대에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무관단과 중국향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 일본의 단체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8일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알렉세이 바르부호프 로직아인방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8일 중국향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

과 일본 <도쿄-평양무지개다리>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불패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체사상께서 1948년 9월 9일 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어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사건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가지게 되었다.

김일성주체사상에 의하여 조선에 건설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에 빛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해나가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의 선군령도아래 조선의 사회주의는 승미적으로 진전되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는 조선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존엄명치되고있다.

세계와 그 추종세력들은 일심단결되고 막강한 군력을 가

진 조선을 감히 건드려지 못하 고있다.

조선은 김정은원수에 의하여 반드시 통일될것이다.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 조선은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 경축연회 진행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상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 경축연회가 9일 옥류관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연, 열화와 같은 애국헌신으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업무를 개척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만만치않은 노력을 마친애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과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호모식으로 열렬히 고조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우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인물들과 우당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인원을, 풍모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제1본 조선인축하단, 제1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0돐대표단과 사회주의조국에 제부하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주조 머리 나라 의뢰 및 국제기구대표부, 무관 부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연회는 애국가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대륙간단드록메트로정착을 수수한시험의 완성성공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적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자력정쟁의 진진홍홍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창건 69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조선의 토크물체성과 다양한 전도,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값높은 삶과 존엄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탄생한 력사의 날과 하나로 잇닿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큰 70성상의 력사는 중첩되는 시련의 난파도를 헤치며 가뭄처럼한 조국해방전쟁과 새기기를 이어오는 난제대변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공지들만은 력사이며 전인민단의 사회주의건설에서 강국건설의 새기적년월을 맞이해 실현하여온 기적과 만연의 력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의 하늘가에 힘있게 나뉘는 함홍의 공화국에서는 세상의 모진 한비늘과 다 맞으면서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말을 강고히 버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고결한 넘과 제위가 뜨겁게 숨어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주로 존엄하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의의 강국으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주의의 나라로 찬연히 나타내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명한 영도밑에 최약의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실재도따라 신심자들이 비약해나가고있으며 자기 맡긴 최정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비의 탄력과 배양, 천재적인 예지와 헌신적인 영도도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인민의 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주체조선의 힘은 불가항력적이며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과 확관을 넘쳐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신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모두의 삶의 요람이고 존엄의 상징이며 후손만대가 운명을 맡기고 영원히 안겨 살아야 할 진정한 어머니나라라고 강조했다.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적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따라 적대세력들의 국약무한한 반공화국세력인 살육공을 일신단결과 자력정쟁의 위력으로 파카히 채강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헌신공적, 계속혁신, 계속진전의 승전포장을 더욱 높이 올려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이번 수수한시험의 대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찍인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면서 그는 공화국정부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리념에 자주통일의 태도를 반드시 열어나갈것이며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맞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으로 굳게 붙어 자력정쟁의 기치를 북돋아 내달리는 우리의 영웅적전진을 가르막을 힘은 이 세상이 없으며 세계는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이 어떻게 사회주의강국의 영마루에 최후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는가를 뜻독히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안광을 축원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와 흥성번영을 위하여 잠을 붙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 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진정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을 맞으며 9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들이 려사릉과 려사묘의 화환진정대에 놓여졌다.

렬사릉들과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령들이 서있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인물들인 김영해동지, 리만진동지, 오수용동지, 박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최유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유동동지, 김수길동지, 강철동지, 노광철동지,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인원을, 풍모자들이 이 날에 참가하였다.

렬사릉과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령들이 서있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인물들인 김영해동지, 리만진동지, 오수용동지, 박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최유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유동동지, 김수길동지, 강철동지, 노광철동지,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인원을, 풍모자들이 이 날에 참가하였다.

렬사릉과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령들이 서있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인물들인 김영해동지, 리만진동지, 오수용동지, 박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최유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유동동지, 김수길동지, 강철동지, 노광철동지,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인원을, 풍모자들이 이 날에 참가하였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려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자들이 적혀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주체혁명적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부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붙어 일신단결, 자력정쟁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부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남자축구 1급 해블림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 진행



해블림의 먼저차기로 경기는 시작되었다. 광팀 선수들은 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떠만한 경기전법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질,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경기력을 박력있게 운영해나갔다. 경기시작부터 속도 높이를 주조권을 쥐기 위한 광팀 선수들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공격으로 이슬이슬한 경기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그러나 관중들의 열기인 함성이 경기장을 진감하였다.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 경기는 0:0으로 비진 가운데 끝났다.

경기가 끝나자 전체 관중자들은 높은 축주기와 팀의 단결력을 과시한 광팀 선수들을 열렬한 박수갈채로 축하해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 경축 남자축구 1급 해블림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당의 체육강국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고조시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배태해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 경축 남자축구 1급 해블림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당의 체육강국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고조시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배태해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 경축 남자축구 1급 해블림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당의 체육강국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고조시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배태해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 경축 남자축구 1급 해블림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당의 체육강국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고조시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배태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경축 제1본조선인축하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9일 김영남조선인축하단연구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제1본조선인축하단 경의 표시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조국방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주셨으며 제일 조선인운동의 강발전에 불변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김제위원들의 뒤를 따라 승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건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광을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천만년 살리라

다함없는 경의의 정 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태양의 성지에 그리움의 대가 감이처로다, 투대사변들이 민족의 대명사, 투대사변들이 연이어 터져오른 격동적인 시기에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한 기쁨과 환희로 하여 주체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온 태양의 품속에서 천만년 살리라,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태양의 품속에서 천만년 살리라,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태양의 품속에서 천만년 살리라,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태양의 품속에서 천만년 살리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9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우리 공화국의 무적막강한 국력을 과시한 반만년민족사에서 특기할 대사변을 맞이한 광들의 직정과 직접을 안고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는 청년학생들로 열렬히 고조되었다.

당장건기념달,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내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노래소리가 울려라》 등 경축곡이 연주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 나라 청년학생들의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을 담아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노래소리 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중국에 가는 국가관광총구대표단 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중국에 가는 국가관광총구대표단 출발

조성경총구대표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총구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세계관광기구총회 제2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에서 리용집 국가관광총구 부총구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성경총구대표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총구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세계관광기구총회 제2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에서 리용집 국가관광총구 부총구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